"누가복음 5장 17절~26절 강해 설교"

은혜와진리교회 조용목 목사

구역예배

- 성경 : 누가복음 5장 17절~26절 강해 설교
- 찬송 : 찬송가 340장(새찬송가 542장)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람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지난 주일과 동일한 본문을 상고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기사에서 지난 주일에 다루지 못했던 나머지 교훈들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시니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뒤늦게 중풍병자를 누인 침상을 들고 온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집 안팎에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침상을 지붕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계신 곳의 지붕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무례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의 소행에 대하여 보이신 반응이 매우 놀랍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드디어 지붕이 휑하니 뚫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위를 쳐다보니 네 사람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 네 사람은 집안의 분위기나 광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침상의 네 귀퉁이를 맨 밧줄을 서서히 늦추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모두들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드러우나 힘있는 음성으로 "이 사람아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다." 하신 후에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중풍병자가 즉시 일어나서 침상을 둘러메고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표정과 태도가 일제히 달라졌습니다. 모두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본문에서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위하여 일심으로 협동하는 모습과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쳐 주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에 대한 기록을 집중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장에서 쏟아지는 흙먼지를 뒤집어쓰고도 동요하지 않고 침상을 달아 내리는 사람들을 관심 깊게 보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본문 중에서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셨다."라는 말씀에 관련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란 중풍병자와 그를 침상에 누여 예수께로 온 네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다섯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라는 대명사는 '우리'의 낮춤말로도 사용됩니다. 그런고로 '저희'보다 '그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각별한 호의를 나타내시며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이 어떤 성격과 내용을 가진 믿음인가를 자세히 살펴봄이 매우 유익하고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를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에 관한 정보(情報)에 의한 것입니다.

오래 전에는 정보라는 용어가 그리 널리 흔하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군사, 국가 안보 등의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지식의 수집 전달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흔하게 사용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개인에서 국가까지 모든 사회는 양질의 그리고 많은 분량의 정보를 가지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하면 여러 면에서 뒤떨어지고 곤란을 겪게 됩니다. 신앙 역시 정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앙에 관련된 정보는 보통의 정보와 달리 차원이 높고 완전한 정보입니다. 이는 구원과 영생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런 정보는 사람이 창안하거나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습니다. 사람이 일평생 습득하는 정보(지식)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정보(지식)보다 더 보배로운 것은 없습니다.

성경 잠언서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잠 9:10)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호 4:6),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호 6:3)라고 애타는 심정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망하게 됩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그들의 무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정보를 무시하거나 배격하고 왜곡되고 인본주의적인 정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분류하면 이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지식입니다. ①영이시며 ②영원하시며 ③하나이시며 ④전지전능하시며 ⑤무소부재하시며 ⑥절대주권자이시며 ⑦거룩하고 의로우시며 ⑧진실하시며 ⑨선하시며 ⑩인자하십니다.

둘째는,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지식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일 그리고 뜻과 섭리에 관한 지식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관한 지식입니다.

다섯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지식입니다.

이미 성취된 것과 현재 성취되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성취될 언약입니다. 이러한 지식, 이러한 정보는 사람의 두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며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행적 그 모두가 인생들에게 주신 정보입니다. 신령한 정보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메시지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어야 합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가 누여있는 침상을 들고 예수님에게로 온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병인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나병환자들에게 손을 대어 고치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전달되는 정보를 통하여 지식과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기록된 것을 보니 네 사람은 단지 고용되어 침상을 메고 온 자들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기 원하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암송하고 묵상하십시오. 성경적인 설교를 경청하십시오.

둘째, 그들의 믿음은 확신에 찬 것입니다.

어설픈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야무지지 못하여 부정적 생각이 들거나 부정적 말을 들으면 그만 허물어집니다. 반신반의(半信半疑)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오락가락하다가 부정적 영향을 받으면 믿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약 1:6~8) 하였습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요지부동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찌라도 믿습니다."라는 믿음은 반신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결정이 무엇이든 개의치 않겠다는 의지표명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거대한 금 신상을 세우고 높은 지위에 있는 관원들이 참집한 가운데 낙성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왕의 명령을 반포하는 자가 외치기를 "악기가 연주되면 모두 금 신상에게 절하라 절하지 않는 자는 불붙는 용광로에 던져 넣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결박되어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이들이 영특한 인재라는 것을 아는 왕은 분노를 참으며 한 번 더 기회를 줄 터이니 악기 소리를 듣거든 신상 앞에 엎드리어 절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만일 거부하면 극렬히 타는 용광로 가운데 던져 넣겠다고 하였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태연자약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찌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대답의 요점을 둘로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광로에서 능히 건져 내십니다." 둘째는, "그리 아니하실찌라도 우리는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찌라도'라고 그들이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생사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결정에 맡긴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하며, 믿음으로 행동하였지만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는 믿음에 결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데 경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자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결정에 자신을 온전히 맡김과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차원에서 일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확신함이 믿음의 기초이며 축이 된 성도는 회의에 빠지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대체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행한 것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구하고 믿으며 행하여야 합니다.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러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주저 없이 비상한 방법으로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려고 한 것은 요행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환자 스스로는 운신할 수 없으므로 침상에 누운 채로 가려면 최소한 네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들것의 좌우편을 긴 막대기로 채를 꿰어 앞 뒤 네 곳의 손잡이를 네 사람이 각각 잡고 땀 흘리며 힘겨운 걸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틀림없이 나음을 얻게 된다는 확신 없이는 시험 삼아 시도할 일이 아닙니다. 침상을 운반한 네 사람이 중풍병자와 어떤 관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가족이든 아니면 친구일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였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의 인자와 능력을 온전히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들의 믿음에는 행함이 수반(隨伴)되었습니다.

그들은 탁상공론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안 된다든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가능한 길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무거운 침상을 들고 갔습니다. 그들이 현장에 도착해보니 먼저 온 사람들이 집 안팎에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의 침상을 지붕으로 올려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렸습니다. 남의 집을 훼손하면 당연히 원상 복구해 주어야 합니다.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얻는 가치에 비하면 지불해야 할 희생은 오히려 적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큰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적은 손실을 감안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옳았습니다. 예수께로부터 죄 사함 받는 것의 가치를 능가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을 고침 받고 자유롭게 활동하게 된다면 손해배상하여도 아깝지 않습니다. 탁상공론 하는 데는 손실과 희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동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행함이 수반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며 산 믿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은 행함을 통하여 '보이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약 2:18)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이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약 2:20~24). 중풍병자와 네 사람 역시 그들에게 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인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보신' '그들의 믿음'은 바로 그들의 행함으로 나타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예수님은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믿음을 보시고 권능을 베푸십니다.

넷째, 그들의 믿음에는 끈기가 있었습니다.

끈기란 단념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해서 안 되면 두 번, 열 번, 백 번, 결과를 보기까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되기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히 10:36,38) 하였습니다.

중풍병자와 그를 돕는 네 사람은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믿음에 의한 행동을 지속했습니다. 그들은 일찍 출발하였지만, 현장에 도착해 보니 벌써 사람들이 집 안팎에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에게 잠시 지나갈 터이니 양해하여 달라고 통사정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간청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될 일을 뻔히 알면서도 떼를 쓰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니 '그냥 돌아가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생각이 들 만합니다. 여기서 좌절하고 포기하든지 계속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다른 길을 모색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들은 난관을 돌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접근할 수 없으므로 비상한 방법을 쓰기로 하였습니다.

그러자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네 사람은 힘을 합쳐 침상을 지붕위로 올려서 예수님 계신 곳의 지붕을 뜯고 침상을 달아 내리기로 한 것입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지붕을 뚫었습니다. 그리고는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침상의 네 곳 손잡이를 밧줄로 단단히 매고 서로 보조를 맞추어 서서히, 서서히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들이 이런 행동을 진행해 나가게 한 원동력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과 확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가로 막는 것들이 무엇이든지 그것으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여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후퇴가 아니라 전진이었습니다. 그들은 길이 없는 상황에 직면하니 새로운 길을 찾아내었습니다. 길이 없으면 다리를 놓고 터널을 뚫듯이 그들은 난관에 봉착하면 더 적극성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궁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끈기 있는 믿음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다섯째, 그들의 믿음은 다섯 사람의 합심으로 집합된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가는 데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근처 이웃에 계셨으면 힘센 사람이 중풍병자를 업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침상에 뉘어서 네 사람이 운반해 온 것을 보니 상당히 먼 곳에서 온 것 같습니다. 한 사람으로는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운반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 앞뒤에서 침상을 들고 가면 먼 거리는 힘이 부치어서 갈 수 없습니다. 세 사람이 운반하면 여러 번 위치를 바꾸어 교대해야 합니다. 침상은 네 사람이 들어야 잘 운반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협동하면 큰일도 용이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나 하나만이라도'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협력하는 정신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은 사회는 발전하게 됩니다.

네 사람이 침상을 들고 예수님 계신 집에 당도해 보니 먼저 온 사람들로 인하여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믿음은 없지만 체면 때문에 혹은 박절하게 거절하지 못하여 동참했다면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물러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네 사람이 서로 쳐다보다가 누군가 말했습니다. "옳지,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침상을 지붕위로 올려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립시다. 그리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모두 이구동성으로 아멘 하고 화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합심으로 집합된 큰 믿음을 주님께서 눈 여겨 보셨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미약하여도 다수가 합심한 믿음은 강하고 큰 믿음입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이 이렇게 집합된 큰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하나+하나+하나=넷이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크기의 믿음을 가진 네 사람의 믿음을 집합하면 각각의 믿음이 넷이 됩니다. 넷x넷=열여섯 분량의 큰 믿음이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은 이러한 위력을 나타냅니다. 이론으로는 납득이 안 될 수 있지만 실제로 경험해본 사람은 그렇다고 수긍할 것입니다.

예루살렘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그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행 4:29~31). 가정에서 구역에서 교회당에서 여러 사람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모두가 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회적, 국가적 중대사에 직면하였을 때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동일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연합하고 집합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2019년 10월 3일 개최된 '한국교회 기도의 날' 전국에서 운집한 성도들이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부터 남대문에 이르는 도로를 가득 메워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믿음을 집중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 날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시고 기뻐하시며 기도를 들으신다는 징조를 여러 가지로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체험하였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당시의 집합된 믿음으로 간구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마 18:19) 하였습니다. 빛을 프리즘을 통하게 하면 여러 색깔이 나타나듯이, '예수님이 보셨던 그들의 믿음'-중풍병자와 침상을 달아 내린 네 사람의 믿음-을 분석하니 다섯 가지 성격과 내용을 지닌 것이 밝혀졌습니다. 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지식에 의한 믿음 ② 확신에 넘친 믿음 ③ 행함이 수반되는 믿음 ④ 끈기 있는 믿음 ⑤ 다수의 합심으로 집합된 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러한 성격과 내용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